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순천시,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 발대식 성료

순천 제1호 반려나무로 황금회화나무 식재

순천시가 최근 풍덕동 동천변 그린웨이(한신아파트 옆)에서 개최한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 발대식'을 지구지킴이 어린이, 시민 등 500여명의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동천변 그린웨이에서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시민운동본부 발대식과 함께 지구온도 1도 낮추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지구지킴이 순천지부 출범식이 진행됐다.

행사장에서는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황금회화나무가 순천시 제1호 반려나무로 식재됐다.

황금회화나무는 선비와 학자의 나무로 고향을 그리며 마음과 행복을 상징하며, 시민 모두가 순천을 사랑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의미로 선정됐다. 제1호 반려나무 주변에는 시민 500명이 흥매화, 산수유,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 반려나무를 식재해 반려나무 숲을 조성했다.

히석 순천시장은 "오늘 심은 반려나무를 시작으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는 나무가 천만그루의 나

무가 되어 숲취기 좋은 도시, 생명 숲 가득한 순천을 만드는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는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해설사, 조정, 농·임업인 등 공모를 통해 선발된 48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시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범시민운동 전개한다.

시는 2020년까지 시 전체에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이 협력사업을 통해 아이나무, 반려나무 등 스토리가 담긴 나무를 심어 시민이 편하게 숲 쉬고 추억을 만드는 생명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공공시설사업 자체 설계로 예산 4억 원 절감



보성군은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지원단 운영을 통해 예산 4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설계 지원단은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용배수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180건 60억 원 규모의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설계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기 전

인 5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2월 초 설계단을 꾸리고 2월 말 자체 설계를 완료했다. 자체 설계로 절감된 예산은 지역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설계 지원단은 시설직(토목직)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2월 12일 발족했으며, 지난 1월 군민과

의 대화에서 마을단위 숙원사업 공모제에서 건의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장단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성군 담당부서에서 2차 검토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3월 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해 사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특히, 시설직(토목직)이 없는 노동 등 8개 면에는 분청에서 인력을 지원하여 현지 조사부터 설계까지 직접 참여해 사업 조기착수와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해졌다.

군은 이번 설계지원단 운영으로 시설직 공무원들의 실무경험 증진 등 물론 상호 기술교류와 직무역량 향상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양시, 스마트공장 구축 성공전략 설명회



광양시는 최근 광양상공회의소에서 '광양시 스마트공장 구축 성공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시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성공전략을 기업별 및

축형 지원에 두고, 올해 1월부터 전남 최초로 공장 사전 방문 컨설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2개월 간 전문 컨설턴트와 신산업팀이 25개 중소기업에 방문

하여 컨설팅 한 결과, ▲스마트공장의 개념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 현황 ▲지원금액과 자부담의 비율 ▲중복 신청가능 여부 ▲스마트공장 도입 절차 ▲CT시스템 접목 방법 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광양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승호 위원(컨설턴트)를 초청해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스마트공장 개요 및 구축 방안, 맞춤형 스마트공장 성공전략, 스마트공장 지원 사례 등을 교육했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스마트 공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스마트공장을 전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김승호 기자

광양시, '2019년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가 육성' 앞장

6개 창업팀 선발...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광양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인 '2019년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가 육성'을 위해 예비 청년 사업가 6개 팀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은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팀을 선발하고 창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및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예비창업팀 또는 초기창업팀으로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팀 대표 포함 구성원 1/2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창업팀은 사회적경제 진입을 돕기 위한 기본교육과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을 받게 되며, 교육을 수료한 팀에 한해 팀당 최대 1250만 원까지 창업

지원금을 받게 된다.

모집은 4월 5일까지이며, 참여 신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돼 있는 관련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광양시청 투자지원과 담당관(☎061-797-1968)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전해 담당관은 "청년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적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 도착 '독립의 햇불' 한뜻으로 환영

청소년수련관서 시청까지 행진하며 만세 삼창



순천시는 19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의 햇불' 전국 릴레이 행사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독립의 햇불 릴레이'는 3·1운동 기념일인 지난 1일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인 4월 11일까지 총 42일 동안 2019명의 주자가 전국

22개 지역에서 햇불을 들고 뛰는 전국단위 행사다.

순천시와 전남동부보훈지청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하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채홍호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획단장 등 시민 5백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10시 청소년수련관 광장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햇불집회 후 청소년수련관에서 순천시청까지 햇불 릴레이가 펼쳐졌다.

릴레이는 청소년수련소에서 출발

순천시청까지 총 1.2km를 하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학생, 시민 등 총 100명이 독립의 햇불을 들고 행진했다.

행진에는 경찰차량 선도차량 뒤로 제7391부대 5대대 군 장병이 든 대형태극기와 만세제헌 연극팀, 햇불주자 등 시민 500여 명이 행진에 참여했다.

특히 극단, 지피지기 회원들이 재현하는 만세삼창은 강남여고를 비롯한 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등 청소년 30여 명이 참여해 도래할 100년의 의미를 더했다.

'독립의 햇불' 순천시청에 도착한 후 진행된 폐회식에서는 배해진 전남3·1독립만세운동 유족회장의 만세삼창을 시작으로 햇불주자들의 종신 날리기, 집회에 집회 순으로 진행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순천=김승호 기자

영광군, 2월 출생아수 전남 군 지역 1위

영광군은 전국적으로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출생아 수가 1월 50명, 2월 54명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전남 2월 출생아 수가 시·군별로 100명을 넘는 곳은 여수시 147명과 순천시 141명뿐이고 군 지역에서 50명을 넘는 곳은 영광군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연

관된 지방 소멸, 나아가 생산 인구 저하로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출생아수 증가'는 영광군이 지속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광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3,000만원, 최고 3,500만원 대폭 상향 지원, 3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 지원,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진비 지원, 신생아 출생기념 식수,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원스톱서비스 구축과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